

아파트 불법 투기세력 뿌리 뽑는다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신설... 부동산 거래 동향 분석·대응 방안 수립·조사 결과 따른 고발 등 진행

전주시가 아파트 투기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하는 등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3일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에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단원들에게 임명장을 줬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이 단장을 맡은 특별조사단은 지적, 세무, 행정 등 관련 분야 공무원 8명으로 꾸려졌다. 여기에 다음 달까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부동산 거래 관련 전문가 2명이 합류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단은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차단한다는 목표로 ▲부동산 거래와 거래가격 동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거래 동향에 따른 특별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 등 후속 조치 ▲인터넷 부동산 포털사이트 등 매물정보 모니터링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자료의 구성·운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급증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 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국제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시는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운영



김승수 전주시장은 23일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에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단원들에게 임명장을 줬다.

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아파트 투기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으로 재편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급등한 전주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

비율이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게 됐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한층 강화되고, 청약도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가 생겼다.

시는 지난 8일 예코시티와 혁신도시 등의 아파트 거래 222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다음 달 31일까지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별조사단은

아파트 불법 투기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불법·탈법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 등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사립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치유 시급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발간 지역 청소년 20.3% 인터넷·29.3% 스마트폰 과의존

전주지역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전주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2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주시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주시청소년안전망 구축 10년차를 맞아 전주 지역민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추진 전략을 재정비하고, 지난 2012년 추진한 위기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진행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기수준을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으로 분류했을 때 전주지역 청소년들은 고위험군 1.7%, 잠재적 위험군 13.9%, 일반군 84.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을 포함해 15.6%의 청소년에 대해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2년과 올해 청소년들의 위기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인터넷

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제외한 음주, 흡연, 학교폭력, 비행, 자살, 성문제, 가출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위기 정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전주시청소년안전망의 허브기관인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주지역 청소년의 20.3%가 인터넷 과의존으로, 29.3%에 달하는 청소년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때 이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상담 및 교육, 치유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센터는 지난달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주시 위기청소년 지원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정책 포럼인 '인터넷 시대, 위기청소년 올바른 컨택'을 개최했다.

정혜선 센터장은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을 예방하고 치유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향후 3년 계획에 반영해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정원문화박람회' 내년 6월 개최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에서 생활 속 정원을 확산하고 정원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원문화박람회가 열린다.

전주시는 내년 6월 2일부터 6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 기린대로, 노송동 일원, 전주시 양묘장 등 4개 구역에서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원, 문화와 산업의 상생'을 주제로 열리는 이 박람회는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제정원박람회나 국가정원으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시는 박람회를 통해 전시정원과 도시공공정원, 초정정원 등 70여개의 정원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도시공공정원' 분야에 참여할 전문 작가 3팀과 시민 작가 4팀 등 총 7개 팀을 모집한다. 전문 작가의 경우 정원 관련 분야 종사자 등 전문가여야 하며, 시

민 작가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선정된 작가들은 내년 4월부터 '공공·일상'을 주제로 노송동 일대의 자투리 땅(개소당 50~100㎡)에 공공정원을 조성하게 된다. 조성비용의 경우 부지 규모에 따라 전문 작가에게는 3,500만원 내외, 시민작가에게는 1,000만원 내외가 지원된다.

시는 내년 5월 현장심사를 통해 대상 1팀을 선정해 상금 500만원을 시상하고, 전문 작가와 시민 작가 각 1팀씩을 우수상으로 뽑아 각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도시공공정원 조성에 참여할 전문·시민 작가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jjgcf@m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정원문화산업팀(063-281-2672)으로 문의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인후·반촌·팔복동 지역, 도시재생 뉴딜 공모 선정

전주시 인후·반촌과 팔복동 노후 지역이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되살아난다. 작은도서관과 무인택배함, 문화카페, 찜자공원 등이 조성되고, 마을장터와 환경축제도 열린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의 '2020년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인후·반촌 지역과 팔복동 지역이 최종 선정돼 국비 총 190억원(인후·반촌 지역 100억원, 팔복지역 90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인후·반촌 지역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만에 선정됐다. 이 지역에서 시는 오는 2024년까지 '서로의 우산이 되는 지우산 마을'을 주제로 ▲편안한 마을 만들기 ▲사람의 마을 만들기 ▲우리의 마을 만들기 등을 목표로 삼아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팔복동(구 문화시멘트) 부지에는 행복주택 63호를 구축하고, 우산장 무형

문화재인 유구상 정인과 협업체 지우산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우산 어울림 플랫폼을 중심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돌봄, 문화 공동체 활동 등을 펼칠 방침이다. 작은도서관과 무인택배함, 문화카페도 조성한다.

팔복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빈집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화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시는 '오손·도순 함께 가꾸는 그린신복마을'을 비전으로 ▲오손도순, 서로돌봄마을 ▲초록가득, 숲마을 ▲다함께, 마을경쟁력 재생 등을 목표로 활력이 넘치는 마을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시는 빈집밀집구역 등 10만㎡ 부지에 청년예술인주택 18호, 고품격자신주택 12호 등 세대교류 공공임대주택(50세대)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교실, 신복그린숲도서관 등 거점시설을 구축하고, 팔복길정비사업과 그린집수리 사업 등을 펼치기로 했다.

/김윤상기자

교통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전주시,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 위해 시범사업 추진 보행자가 횡단하려는 순간 운전자에게 시각·소리로 경고

전주시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운전자에게 시각과 소리로 경고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삼천동 용흥초교 인근과 경원동 삼호저축은행 앞 오거리에서 교통인공지능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보행자가 횡단 대기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CCTV가 보행자와 차량을 인식해 차량 운전자에게 글

자·이미지·소리로 경고하고 보행자에게는 차량 접근을 소리로 안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삼천동 용흥초교 주변은 무단횡단이 빈번하고 횡단보도 쪽으로 우회전 시 가로수 및 기타 시설물에 보행자 확인이 힘든 지역이다. 경원동 삼호저축은행 앞 오거리도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데다가 무단횡단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다.

시는 내년 3월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디스플레이와 감지 센서, 정보 전송 시스템을 해당 구역에 설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